



다솜 사랑

Volume 5, Number 4

2009년 6월 6일

다솜 사랑
Vol. 5, No. 4 (제22호)
펴낸이: 교장 최미영
엮은이: 교사 임강주

학교장 인사말씀

지난 1년 동안 토요일마다 열심히 한국 학교에 와서 한글과 한국역사 문화를 익힌 우리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토요일마다 늘 애써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주말을 헌신해가며 2세들의 뿌리교육을 위해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4년 개교 이후에 해를 거듭하면서 성장 발전해온 다솜한국학교가 올봄에 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 10주년, 20주년 마침내 지금의 학생들이 학부모가 되어 다음 세대를 학교에 보낼 때까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미 발송한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오는 2009년 가을학기부터는 금요일로 수업일을 변경하기로 한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금요일 수업은 토요일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혹은 다른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동안 부모님들의 의견 조사(80% 찬성)의 결과와 교사들의 심사 숙고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수업시간 변경에 따라 20%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결정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

니만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학부모님들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의 분들에게도 널리 알리시어 학교가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학교는 교사와 학생들만의 학교가 아닙니다. 학부모, 교회,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하여 함께 이끌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2008-2009학년을 마치며 그동안 여러 모로 동참한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 교회 성도님, 지역사회 여러 어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6월 13일

교장 최미영 드림



다솜 직접

6월 13일 북가주 교사 집중연수 (임마누엘 장로교회)

7월 23-25일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학술대회

9월 11일 오후 4시 30분 2009학년도 가을학기 개강



2009년 가을학기부터 금요일 오후에 수업을 합니다.

가을 학기 개강 일시: 2009년 9월 11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



고조선반

송향화 선생님

내가 처음 고조선반 아이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처음 익히는 한글을 좋아하게 할까 라고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조선반 아이들의 나이가 서로 다르므로 어느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몰라 걱정이 되었지요. 모든 것이 각각이었던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교실 안에서 함께 한글을 배우고 같이 놀면서 친구가 만들어지고 그룹이 형성되면서 수업 중에 옆 친구와 떠들기도 하고 서로 도와 그날 배운 글자도 함께 찾아보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Sharing 시간에는 친구와 같은 물건을 가져와 발표도 하며 잊어버리고 물건을 가져오지 않으면 재치있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아무거나 Sharing Box에 넣어 놓고 자기 차례가 되기를 기다리다 자신 있게 발표하고 나서 가슴 뿌듯해 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 배우는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아쉬움으로 한 학년을 마치는 시간이 되고 보니 일 년 동안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한글을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아이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가르침도 배웠음을 알



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시기에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마음속에 지혜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시기임을 아시지요? 그 그릇을 튼튼하고 큼직하게 만들어 놓아야 이 다음에 필요한 지식을 담아도 넉넉하게 담을 수 있지만, 이 시기를 게을리해서 지혜의 그릇을 적게 만들어 놓으면 이다음에 담고 싶을 때 그릇이 작아서 담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 또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지혜의 그릇을 만들어 가는 이 시기에 조금이나마 제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도 고조선반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국 땅에서 한글을 배우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한 번쯤 게임을 피워보고 싶은 토요일을 뒤로 하고 토요일 아침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교실 문을 들어설 때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먼 훗날 되돌아보면 지금 이 시간이 부모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겠지요. 언제나 우리 어린이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와 배움이 주는 즐거움을 오랫동안 간직하길 바랍니다.

신라반

황현경 선생님

지난 9월에 새 학기를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여름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9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신라반 학생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 많지 않은 학생 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인 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며 보냈습니다. 한 명, 한 명 모두 다 소중하기에, 모든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길 바라는 기대를 하며 수업에 임했지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달래기도 하고 엄하게 혼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은 저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르기에 모두에게서 똑 같은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역시 무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몇의 학생들에게서는 많은 발전을 볼 수 있었지만, 또 몇몇에게서는 큰 진전이 없었지요. 모두가 실력이 월등히 향상되었다면, 한 해를 마치는 기분이 더욱 만족스러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아쉬움을, 어려움을 교훈 삼아 내년도에는 더



욱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내야겠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즐겁게 생활한 준이, 쉬는 시간엔 말도 못하는 개구쟁이지만, 수업 시간엔 의외로 열심히 학이, 결석이 좀 잦았지만, 학교에서만큼은 누구에 뒤지지 않게 열심히던 수영이, 한글 실력이 부쩍부쩍 늘던 아영이, 누구보다 열심히 손을 들어 대답하던 시내, 다친 손으로도 열심히 숙제를 해 오던 준원이. 새로 학교에 와서 낯설었을 텐데도 금방 친구들을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하던 현아. 이 아이들이 모두 한국어를 잘 배워서 자신을 위해, 남을 위해 한국어 실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 아이들 자신의 노력은 물론 부모님들의 많은 도움이 꼭 필요하겠지요. 감히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도 한국어도 잘 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기 위해 단지 한국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만이 아닌 그보다 몇 배의 노력을 가정에서도 해 주시기를...

말잇기 놀이



원숭이 통구멍은
빨개, 빨가면

불자동차(현아) 풍뎅이(수영) 장미(준)
고추(아영) 체리(준원) 불(혁) 나비(시내)



사과, 사과는 맛있
어, 맛있으면

김치(현아) 사탕(수영) 초코파이(준)
딸기(아영) 씨리얼(준원) 밤(혁) 김치(시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피리(현아) 연필(수영) 버스(준) 내 머리(아영)
원숭이 팔(준원) 뱀(혁) 빨대(시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로켓트(현아) 스쿠터(수영) 사슴(준) 치타(아영)
상어(준원) 돌고래(혁) 오토바이(시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기린(현아) 연(수영) 하늘(준) 빌딩(아영)
구름(준원) 나무(혁) 별(시내)





고구려반

이혜원 선생님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다. 아이들은 과연 나를 통해 얼마나 한국어를 알게 되었을까? 또 얼마나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음식과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맘이 생겼을까?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아이들을 무리하게 끌고 오기도 하고, 안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던 거 같다. 그런 나를 인내하며 잘 참아준 고구려반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들을 아이들과 함께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 다음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한국학교를 떠올릴 때 열린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할 것 같다.

한국학교에서 가장 좋았던 일은?

김유나

나는 한국어 배우는 것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한국학교에서 하는 것 뭐든지 다 좋아요.



남 석

나는 라면 끓여 먹은 것이 가장 재미 있었어요.

백제반

백지현 선생님

“정말 도토리가 자라서 밤이 된 것일까요?” 이 문장은 지난 개교 기념식때 우리 백제반에서 한 연극 ‘마음대로 의자’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미 수업시간에 배웠던 이야기를 짧은 연극으로 만들기로 결정한 후, 학생들과 의논하여 역할을 정하고 대사를 외워 오라고 숙제로 내줬다. 모두들 기대 이상으로 잘 외워 왔었고 반응도 적극적이었다. 4주 동안 매주 조금씩 연습을 했다. 시골벽적, 티격태격 열심히도 했다. 심지어 평소 때는 수업에 집중



을 안 하던 몇몇 말썹꾸러기 친구들까지도... 연습을 하는 동안 여기저기서 좋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렇게 모아진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종 소품들과 기본적인 형식이 탄생했다.

개교 기념식날, 무대에서 그동안 노력한만큼 실수 없이 훌륭하게 연극을 마쳤다. 너무 대견스럽고 뿌듯해서 웃음이 저절로 새어 나왔다. “정말 도토리가 자라서 밤이 된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외친 이 문장의 의미를 우리 반 아이들은 알고나 있을까?

한국학교에서 가장 좋았던 일 /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원수빈 (백제반)

나는 다솜 한국학교를 좋아해요. 친구가 많이 있어요. 뜨개질도 좋아해요. 그런데 숙제가 아주 힘들어요. 나는 숙제를 싫어해요. 한국 학교가 끝나면 나는 집에서 숙제를 안 해요. 나는 숙제를 금요일에 해요. 다솜 한국학교는 재미있는데 아주 힘들어요. 시험이 있으면 나는 잘 못해요. 나는 선생님을 좋아해요. 내 선생님은 친절한 선생님이에요. 나는 다솜 한국학교를 좋아해요.

송푸른 (백제반)

저한테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백일장, 그림 그리기 대회였어요. 그림 그리기를 할 때 저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그렸어요. 머리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상상해 봤어요. 그리고 줄다리기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팀을 짜서 “영차, 영차” 외치며 우리 편이 이기도록 힘으로 잡아 당겼던 게 기억이 나요. 특히, 현우와 다른 애들과 풍선칼로 싸운 것도 재미있었어요. 마지막에 보물찾기를 했는데 보물을 찾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이번에도 노력상을 받았어요. 다음에는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어요.

양희선 (백제반)

한국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특활이었어요. 나는 뜨개질을 배웠어요. 나는 뜨개질을 하는 게 좋아요. 나는 뜨개질을 할 때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요. 엄마 생일에 뜨개질로 수세미를 만들어 엄마께 드렸어요. 다른 것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장시운 (백제반)

내가 한국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수빈이와 하나와 현우만 왔을 때 일이다. 많은 학생이 오지 않아서 우리는 두 가지 게임을 했다. 그 중 하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한 그룹의 머리가 되는 아이가 다른 그룹의 마지막 아이를 잡아내는 놀이였다. 또 다른 놀이는 또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한 팀이 칠판에 단어를 쓰면 다른 팀이 그 단어의 마지막 글자로 시작되는 단어를 쓰는 게임이었다. 아무도 단어를 이어내지 못하면 게임은 끝난다. 참 재미있는 날이었다.

노현우 (백제반)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한국 학교에 가서 태권도를 한국 친구들과 배웠습니다. 발차기와 막기가 아주 멋있었습니다. 아주 넓은 공원에서 많은 한국 친구들과 그림 그리기를 했습니다. 나는 엄마의 얼굴을 이쁘고 크게 그렸습니다. 그림을 잘 그린 친구는 상을 받았는데, 나와 나의 동생 현아는 장려상을 받아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마음대로 의자'라는 연극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한 첫 연극이었고, 나는 다람쥐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시 한편

엄마 생각

기형도(시인)

열두 십십 길을 이고
 시강에 갇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이따위 철철히 숙제 풀 해도
 얼마나 안 오시네,
 배추잎 길은 빛소리 킁킁킁
 안들리네, 어둡고 어둡워
 공기 텅 텅으로 고요히
 빛소리
 빈방에 혼자
 얼드려 훌쩍거리던

이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잊목...



점심 봉사를 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5월: 고조선반 (서준호, 노다익, 정인하 부모님), 권하영/예림 부모님
- 6월: 신라반 (티아공주/은주, 이재원, 이아영, 김규민 부모님)



종강을 앞두고 올 1년 동안 우리 발해 반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을 돌아보니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반은 정말 모범학생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새로운 것을 배우면 자신이 경험한 일들이나 아는 것들을 떠올려 응용하면서 서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손들고 이야기를 토해내던 기특하고 똑똑한 우리 반 친구들의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매주 내주는 숙제도 얼마나 열심히 잘해 오던지요. 숙제를 검사하면서 보면 의무감에서가 아닌 즐겁게 즐기면서 정성을 다한 흔적들을 자주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문화와 예절을 공부할 때도 지루해하기보다는 신기해 하며 반짝이는 눈으로 재미있게 공부하던 사랑스러운 우리 반 친구들 덕분에 수업시간들이 보람되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우리 다솜학교에서 '가나다라'도 모르던 유치 반 시절부터 함께 했



던 친구들의 향상된 한국어 실력을 볼 때는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느 세월에 한국어를 터득할 수 있을까?”라고 예전에 의문했던 생각이 이 친구들을 보면서 ‘꾸준히 하면 된다’라는 신념으로 확신케 되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이런 좋은 성과가 있기까지는 학부모님의 2세 뿌리 교육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큰 영향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도 매주 열심히 자녀를 학교에 보내주시고 공부를 도와주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많은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준 고마운 우리 발해 반 친구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앞으로 금요일 오후로 옮겨지는 다가오는 가을 새 학년에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욱 발전하는 다솜 한국학교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면서 기원합니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 배웠습니다.

서사무엘

나는 골프를 잘 쳐요. 아빠가 채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아빠와 함께 골프장에 갔어요. 아빠와 골프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골프는 매일 매일 꾸준히 연습을 해야 할 수 있어요.

김민하

나는 축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높이 차는 것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는 멀리 차는 것을 배웠어요.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이쪽저쪽 가야 해요. 그리고 잘 뛰어야 해요. 축구에는 스포츠 정신을 많이 필요로 해요. 아빠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나는 지금 축구를 잘해요.

이수현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색종이 접기예요. 색종이 접기는 색종이를 접어서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고래, 개구리, 물개와 같은 것들이지요. 색종이 접기를 하면 창의력이 좋아지고 머리도 좋아져요. 색종이 접기를 잘 하려면 순서에 맞게 꼼꼼하게 접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원윤지

저는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보조바퀴를 달고 탔어요. 보조바퀴를 달고 잘 타서 아빠가 보조바퀴를 빼주셨어요. 보조바퀴 없이 타니까 너무

힘들고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오빠가 자전거를 뒤에서 붙잡아 주었어요. 그래도 계속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오빠와 아빠가 함께 도와주셨어요. 열심히 연습하니 잘 탈 수 있었어요. 매우 기뻐요.

최유진

나는 스키를 못 탔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스키 학교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잘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잘 돌아요. 누나보다 더 잘해요. 겨울에는 제일 재미있는 것이 스키를 타는 거예요.

김민희

나는 뜨개질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특활 시간에 김영식 선생님한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줄 몰라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코바늘을 가지고 사슬뜨기를 하면서 잘 할거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빼 뜨기는 조금 쉬운 것 같아서 한번 해봤어요. 빼 뜨기를 했는데 조금 쉬웠어요. 집에 오면서도 매일 하다 보니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 다음엔 한길 긴 뜨기를 배웠지만 어려웠어요. 여러분, 뜨개질을 하다 보니 재미있어요! 한번 배워보세요!

이서영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미술이에요.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면 더 재밌게 그릴 수 있어요. 색칠도 더

예쁘게 하고, 미술을 더 배우고, 스케치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스케치로는 진짜 그림을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학교에서 미술 수업이 있어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나는 커서 화가가 되고 싶어요. 친구들도 화가가 되고 싶어해요.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하면 나의 희망을 이룰 수 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김민하 (발해반)

나의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개교 기념일 발표회를 위해 “학용품 이야기”의 지우개가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말할 부분을 열심히 외우고 엄마와 같이 목에 거는 ‘지우개’를 만들었어요. 만드는 방법은 내가 생각해냈고 만드는 것은 엄마가 도와주셨어요. 발표를 하는 날에 엄마, 아빠와 동생 재원이가 왔어요. 틀리지 않고 잘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나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부모님과 선생님 덕분에 훌륭하고 즐거운 ‘학용품 이야기’ 지우개가 되었답니다.

이서영 (발해반)

다솜 한국학교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그림 그리기 대회였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는 큰 도화지에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주제가 엄마 아니면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아름다운 세상을 그렸어요. 숲을 그렸어요. 꽃과 나무를 많이 그리고 조그만 다리도 그렸어요.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는 게임을 많이 했어요. 신발 던지기, 줄넘기, 풍선 만들기와 다른 놀이들을 많이 했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내년엔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수현 (발해반)

나는 다솜 한국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내가 한국학교에 와서 한글을 배우지 않으면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못해요. 한국 학교에서 한국의 예절도 배웠습니다. 예절을 안 배웠으면 한국에서 나를 나쁜 어린이인 줄 알아요. 한국학교에서 한국 단어를 많이 배우지 않았으면 내가 한국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한국말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니까 나는 한국학교를 좋아해요.

김민희 (발해반)

나의 1년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특활 시간에 뜨개질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뜨개질을 시작하면서 뜨개질이 더 궁금해졌어요. 지금은 많이 배웠지만 더

많이 배워보고 싶어요. 아직은 뜨개질이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지만 우리 할머니처럼 옷도 만들고 집안을 뜨개질한 것으로 디자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저는 뜨개질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연습하고 또 하고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잘할 수 있게 되면 기쁠 것 같아요. 뜨개질을 계속 배우고 싶어요.

최유진 (발해반)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재미있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그렸습니다. 그림 그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상을 줄 때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캠핑하러 일찍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내 그림이 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끝까지 못 있어서 슬펐습니다.

원윤지 (발해반)

1년 동안 다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즐거운 다솜 한국학교 운동회날입니다. 청군과 백군으로 나뉘서 게임을 했습니다. 나는 청군이었습니다. 닭싸움, 사탕 먹기,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보물 찾기 등 여러 가지 게임을 했습니다. 모든 게임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청군 이겨라! 청군 이겨라!” 열심히 응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군이 졌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 습니다. 정말 즐거운 하루였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또 운동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사무엘 (발해반)

내가 지난 1년 동안 다솜 한국학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그림 그리기 대회입니다. 나는 친구와 함께 갔습니다. 나는 열심히 그렸어요. 나는 상타서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일찍 가서 몰랐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장려상을 탔다고 전화해 주셨어요. 나는 2005년부터 상을 못 받았는데 2009년 5월 9일에는 상을 탔어요. 아침 조회 시간에 상을 받았어요. 많이 기뻐요. 집으로 와서 어머니에게 상을 드렸어요. 어머니가 참 기뻐하셨어요.





고려반

조현주 선생님

일제 강점기때를 돌이켜 보면, 일본의 끊임없는 민족성 말살정책에도 우리 민족은 우리의 역사와 말과 글을 지켜 왔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한 것도 아니요, 내일의 SAT시형을 잘 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오랜 역사 속에서 자랑스럽게 전해진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한글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한민족의 혼을 심어줄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첫걸음은 우리 글과 말을 우리의 문화와 함께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는 확신에, 비록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수업이지만 이를 통해 조금씩 늘어나는 아이들의 우리말 실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참 고맙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조금씩 깨닫고 배울 때, 미국에서 뿐 아니라 한국에도 공헌하며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그들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이 땅에서 강하게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에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조민기

저는 세계 여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세계여행을 할 때 한국에 먼저 가고, 두 번째로 일본에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일본말과 중국말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과학과 어려운 수학을 배울 거예요. 그러므로 책을 많이 읽을 거예요. 한국에서요.

세계여행이 끝나면 집에가서 T.V.보고 컴퓨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친구랑 놀거예요. 친구들이랑 다 논 다음 자기 전에 게임을 조금 하고 책 10권 더 읽고 밥 먹고 잘 거예요.

박미소

여름방학에 나는 한국에 갈거다. 학교가 끝나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갈 것이다. 한국에서 돌아오면 SAR Prep. 수업을 받아야지. SAR prep 수업은 내 친구와 같이 가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돌아오면 수학과 스페인어 과외 수업을 받을 것이다. 여름 방학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여름방학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다. Great America에 같이 가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과 좋은 영화도 보러 가고 싶다. 고등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가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에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다.

원혁

여름방학에는 잠을 많이 자고 싶어. 비디오게임을 하루 종일 하고 싶어.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싶고, 책을 많이 읽고 싶어. 다른 나라도 가보고 싶어. 친구와 같이 많이

놀고 싶어. 공부하고 수영레슨은 안 받고 싶어! 여름 방학에 Great America하고 Lego Land 같은 곳을 가고 싶어. 만약 지금이 여름방학이라면 정말 좋겠다.

홍희연

저는 여름방학에 한국에 놀러 가고 싶어요. 그리고 방학에 cello도 시작하고 싶어요. 내가 cello를 시작하면 피아노도 더 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친구도 부르고 같이 수영을 할 거예요. 내가 친구들을 부를 때 컴퓨터도 같이 쓸 거예요. 그리고 Great America 놀이 공원에 Season Pass를 사고 날마다 가고 싶어요. 아주 더운 날들은 ice skating을 하러 갈 거예요. 방학 때 할게 많아요. 빨리 여름방학이면 좋겠어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

최윤아

“엄마! 도와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숙제에 뭔가 모르는게 있으면 엄마가 도와 줄 수 있는건 도와 줘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도와주지 않고 더 많이 생각해 보라고 해요. 엄마가 이렇게 하는게 나에게 도움이 되요. 그래서 엄마가 필요하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엄마가 또 잘하시는 것은 요리하는 거예요. 점심과 저녁을 꼭 진짜 맛있게 해줘요. 엄마는 한국음식과 다른나라 음식을 잘 만들어요. 나도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엄마를 도와 드릴게 있으면 도와줘요. 엄마, 사랑해요!!

조민기

저희 아빠는 저한테 잘 해주셔요. 아빠는 제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사주세요. 저희 아빠는 친절하세요. 저희 아빠는 온라인 게임을 만드세요. 그 게임 이름은 “거상” 이에요. 이제는 미국판으로 바꾸는 중이에요. 아빠는 게임을 잘 만드셔요. 저희 아빠는 특별해요. 왜냐하면 제가 무엇을 말하면 아빠는 다 들어주셔요. 그래서 아빠가 좋아요.

원혁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나와 비디오게임을 같이 하는데, 비디오 게임 같이 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어요. 내 숙제가 너무 힘들면 아빠가 도와줘요.

박미소

나는 엄마를 참 좋아합니다.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세요. 그리고 엄마는 집을 청소합니다. 또 한국학교 숙제를 도와 줍니다. 난 엄마를 좋아합니다. 내 아빠도 좋은 사람입니다. 아빠는 숙제를 도와줍니다. 아빠는 또 음식도 만들기도 해요. 나는 엄마 아빠가 참 좋아요.

홍희연

나의 언니는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날마다 언니랑 싸우는데, 나중에는 내가 언니에게 사과를 해요. 그리고 언니가 엄마랑 자주 싸울 때 언니가 많이 불쌍해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 언니에게 비밀도 말하고 친구처럼 지냈는데, 나중에 크면서 언니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나한테 유치하다고 자주 안 놀아 줬어요. 그래도 언니를 사랑해요!!



백일장 글짓기 수상작품

물의 소중함

이수정 (대한민국반)

“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설마 우리 물 한 잔도 못마시고 죽는 건 아니겠지?” 사하라 사막이었다. 나는 언니랑 아프리카에 여행 갔다가 사하라에서 길을 잃어 삼일째 물을 못마셨다. 나는 언니가 미웠다. 언니가 우겨서 아프리카 여행에 왔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은 못 견딜 것 같았다. 이미 난 어지럽고 힘도 다 빠졌었다. 언니랑 나는 물을 찾으러 사막에서 며칠째 걸었다. 후회된다. 그냥 차에 있었으며 더 빨리 발견될 수 있었는데... 언니 말로는 선인장을 찾으면 물이 있을 거라고, 우리 둘은 물을 찾으러 갔다. 그래서 우린 걸었다. 다행히 선인장을 발견해서 물을 마실 수 있었다. 그런데 선인장 안에는 물이 별로 없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언니가 주는 물 한 잔을 다 마셔버렸다. 그리고 우린 구조되기 위해 소리지르며 계속 걸었다.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쓰러졌다. 그리고 다시는 안 일어났다. 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눈물도 안 나왔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앉아 언니만 바라 보았다. 나는 언니가 깨어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멍하게 앉아 있었는데 구조대가 왔다. 그런데 나만 병원에 데리고 갔다. 언니는 이미 늦었다. 의사 선생님이 언니는 몸에 물이 부족해서 쓰러졌다고 그랬다. 다 내 잘못이다. 언니는 나 때문에 쓰러졌다. 내가 물만 안 마셨어도 언니는 지금 내 옆에 있을텐데... 난 이제 물의 소중함을 안다. 우리에게 물은 언제나 마실 수 있고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물은 중요하고 물이 없으면 생명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다.



생일 축하합니다.

5월 생일 학생 : 김유나, 윤하나, 임종현, 장시운, 최학준

6월 생일 학생 : 노현우, 양희원, 원혁, 장시내



다솜 연혁 (2004년 2월 ~ 2009년 6월)

2004년

2월	최미영, 박은경, 김의진, 박주희, 방은주, 이은주, 이현정, 장혜경, 최국희 교사가 주축이 되어 리빙워드 크리스천 센터가 위치한 1494 California Circle, Milpitas, CA에서 학교를 시작하기로 함.
2월 21일	교사회회의에서 41개의 학교 이름 중에서 누리, 다솜, 옥수수, 꿈나무 등의 예선을 거쳐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다솜'을 학교명으로 제정함. (제안자: 박은경 선생님)
2월 25일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에 등록함.
3월 13일	40명의 학생이 5개 반으로 봄학기를 시작함으로써 개교함. (첫 강의는 교실의 미비로 인해 교회 앞에 위치한 레지던스 인 (Residence Inn) 호텔에서 시작함.)
3월 19일	학교 로고의 제정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학교의 모습을 표현하는 현 로고를 제정함)
3월 27일	제26차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 연수회에 모든 선생님들 참석.
4월 2일	박근홍 이사장 추대.
4월 17일	제8회 구연 동화대회에서 박지연 학생 은상 수상
4월 24일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5월 8일:	제11회 북가주 백일장 대회 및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가하여 많은 상을 수상 함.
5월 22일	학력 평가 시험 실시 (우수 학생: 옥수수반: 최유진, 정하경, 개나리반: 최유나, 정하은, 민들레반: 안지연, 이수황, 무궁화반: 이준용)
6월 5일	첫 학기를 골든벨 대회로 종강함. (골든벨 장원: 김병석, 골든벨 2위: 김현지, 골든벨 인기상: 이수황)
6월 12일	제8기 북가주 교사 집중 연수에 7명의 교사 참가.
6월 19일	다솜 한국학교 기금 모금 골프대회 개최.
7월 22일-24일	NAKS 총회 및 학술대회 참가. (참가 교사: 최미영, 이은주, 방은주)
8월 16일-22일	교육인적자원부 초청 한국학교 연합회 임원 초청 연수회에 최미영 교장 참석.
8월 28일	교내 교사 연수회 실시.
9월 11일	가을 학기 개강.
10월 2일	공식 개교식으로 정상기 총영사, 문묘순 교육원장, 장동구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 회장 및 임원 본교 방문.
10월 30일:	상항 평통 협의회 주최 제5회 청소년 웅변대회에서 강수정 학생 은상 수상

2005년

1월 22일	2004학년도 가을학기 종강, 2005학년도 봄학기 교사 연수
2월 5일	2005학년도 봄학기 개강

3월 19일	1주년 개교 기념식 거행
5월 7일	제12회 북가주 백일장 대회, 제5회 그림그리기 대회, 제4회 학부모 백일장 대회 참가 (오전 9시 - 오후 5시, Treasure Island, San Francisco, CA) 백일장 대회 수상자 금상: 강수정, 장려상: 이형진, 입상: 김병석, 이수지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장려상: 김하나, 홍소연, 입상: 양희원, 셋모키, 방수진, 정하은, 송수빈
5월 21일	다솜한국학교 기금 모금 골프대회 개최
6월 4일	종강식을 겸한 제2회 다솜 골든벨 대회 개최
6월 11일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의 제9기 교사 집중 연수회를 다솜한국학교가 위치한 리빙워드 교회(Milpitas, CA)에서 개최 (박은경 교사: 중급반 시범수업 강의)
7월 21-23일	재미한인학교 협의회(NAKS) 총회 및 교육학술대회에 교사들 참가 (최미영, 박은경, 박주희, 방은주, 임지민, 장혜경, 정은경)
8월 27일	교내 교사 연수회 실시 (오전 9시 - 오후 4시)
9월 10일	2005-2006학년도 가을 학기 개강
10월 8일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 제28차 교사 연수회에 참가 (장소: 샌프란시스코 생명의 강 교회)
10월 29일	제9회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 구연동화 대회에서 방수진 학생이 동상 수상 (장소: 세계선교 침례교회, Campbell, CA)
11월 12일	리빙워드 한인 침례교회 사회 복지부, 가정 사역부, 다솜 한국학교 공동으로 가정 세미나 주최 (장소: 리빙워드 한인 침례교회, Milpitas, CA)
12월 3일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 제11회 교사 사은의 밤에서 교사들 장기자랑 대회에서 다솜한국학교1위 수상
12월 10일	다솜 한국학교 조회/발표 및 세라핌 합창단 발표회

2006년

3월 18일	개교 2주년 기념식 및 발표회
4월 8일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 제29차 교사 및 학부모 연수회를 다솜한국학교가 위치한 리빙워드 한인침례교회 (Milpitas, CA)에서 개최
5월 13일	제13회 북가주 백일장 및 제6회 그림 그리기대회 참가(오전 9시- 오후 4시, Treasure Island, San Francisco) 백일장 대회 수상자 은상: 이형진, 장려상: 김병석, 입상: 김재영, 정신혜, 조원정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입상: 송수빈, 원윤지, 유혜리, 이혜나
6월 3일	2005-2006학년도 종강식 및 발표회
6월 10일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 제10기 교사 집중 연수회에 참가 (리치몬드 침례교회) (박미경 교사: 유아/유치반 시범수업 강의)

7월 20-22일	제24차 재미한인학교협의회 학술대회 및 총회 참석 (Denver, Co) (참가 교사: 최미영, 박미경, 김영식, 임지민, 원은경, 백지현, 정은경, 박주희)
8월 26일	교내 교사 연수회 실시 (리빙워드 한인 침례교회)
9월 9일	2006-2007학년도 가을 학기 개강 (임지민 교무 임명)
10월 28일	제6회 청소년 평화통일 웅변대회 (오후 4-7시,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 San Francisco, CA), 박지연 학생 장려상 수상
12월 9일	겨울방학 시작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 총회 및 제12회 교사 사은의 밤 행사 참가 (총 9명) 총회에서 최미영 다솜한국학교장이 제13대 협의회 회장으로 인준됨 (임기: 2007/1/1 - 2008/12/31)

2007년

3월 17일	개교 3주년 기념식 및 발표회 (11:30-12:30pm)
3월 24일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 제31차 교사 연수회를 다솜한국학교가 위치한 리빙워드 한인침례교회 (Milpitas, CA)에서 개최 (오후 4:00-7:00)
5월 12일	제14회 북가주 백일장 및 제7회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 (오전 9시-오후 5시, Central Park, Fremont, CA) 백일장 대회 중등부 수상자 은상: 이수지, 장려상: 김현지, 홍소연, 강아론, 입상: 이형진, 이수정, 강지나 백일장 대회 초등부 수상자 동상: 김상민, 장려상: 신애경 그림그리기 대회 초등부 수상자 장려상: 유아림, 입상: 유희림, 원혁, 장선진, 홍서현
6월 9일	2006-2007학년도 종강식 및 발표회 (11:00-12:30pm)
6월 16일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 제11기 교사 집중 연수회에 참가 (뉴비전 교회) (박은경 교사: SAT II 한국어반 시범수업 강의)
6월 23일	제4회 다솜 한국학교 기금모금 골프대회 (Summit Pointe Golf Course, Fremont, CA)
8월 2-4일	제25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참가(Detroit, MI) (참가 교사: 김영식, 박은경, 송향화, 원은경), 시범수업 강의 -박은경 교사,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감사장 - 김원구 (다솜 웹 및 북가주 협의회 웹 간사)
9월 8일	2007-2008 학년도 가을학기 개강, 반 이름을 변경: (병아리, 옥수수, 개나리, 봉숭아, 해바라기, 민들레, 진달래, 무궁화 / SATII) --> (고조선, 신라, 고구려, 백제, 발해, 고려, 조선, 대한민국 / SATII)으로 변경
10월 27일:	제10회 북가주 구연 동화 대회에 참가 (참가 학생: 최연정(조선반, 장려상), 이수현(발해반, 입상))
11월 10일:	Asian Art Museum (in S.F.) 견학 (11명의 학생 참가)
12월 1일:	제13회 북가주 교사 사은의 밤 행사에 참가 (교사 장기 자랑 2위)

2008년

3월 17일:	2월 2일: 봄학기 개강
3월 24일:	2월 16일: 교무에 원은경 선생님, 재무에 백지현 선생님 임명
5월 12일:	3월 8일: 개교 4주년 기념식 및 발표회 (11:30-12:30pm)
5월 10일:	제15회 북가주 백일장 및 제8회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 (오전 9시-오후 5시, Central Park, Fremont, CA) 백일장 대회 중등부 수상자 은상: 홍소연, 장려상: 이수지, 이수정, 이형진, 김하영 그림그리기 대회 중등부 수상자 입상: 이하나 그림그리기 대회 초등부 수상자 장려상: 박지연, 원윤지, 입상: 이수현
6월 7일:	2007-2008학년도 종강식 및 발표회 (11:00-12:30pm)
6월 14일: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 제12기 교사 집중 연수회에 참가 (세계선교침례교회, Campbell, CA)
7월 17-19일:	제26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참가 (Framingham, MA) (참가 교사: 최미영, 김원구, 송향화, 원은경), 지역협의회 발전 공로패 수상: 최미영 북가주 협의회 회장, 15년 장기근속 교사 표창: 최미영 교장 (근속연수 16년)
9월 6일:	2008-2009 학년도 가을학기 개강, 신입교사 임명: 위미선, 조현주, 이해원
12월 6일:	겨울 방학 시작,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 총회 및 제14회 교사 사은의 밤 행사 참가 총회에서 최미영 다솜한국학교장이 제14대 협의회 회장으로 인준됨 (임기: 2009/1/1 - 2010/12/31)

2009년

2월 7일	2009년 봄학기 개강
3월 14일	3월 14일: 5주년 개교 기념식
5월 9일	제16회 북가주 백일장 및 제9회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 (오전 9시 - 오후 5시, Golden Gate Park, San Francisco, CA) 백일장 대회 중등부 수상자 입상: 이수정 그림그리기 대회 초등부 수상자 장려상: 장려상: 노현아, 서사무엘, 노현우 입상: 이서영, 이수현, 장시온, 최유진
6월 6일:	2008-2009학년도 종강식 및 발표회 (11:00am-12:30pm) 2009년 가을학기부터 금요일 오후 4시30분에 학교를 하기로 결정 발표함.

다 소 학 사 보 고 수상자 명단		
1년 개근 학생수	6 명	
학기 개근 학생수	8 명	
학업 우등상 및 노력상 학생수	6 명	
기타 수상 학생수	10 명	
고조선반	학기 개근	서준호, 정인하
	수료증	김규민, 노다익, 서준호, 이준희, 이기원, 정인하, 최지현, 유지Minami, Thia 공주, Thia 진주
신라반	1년 개근	원준, 윤혁
	학기 개근	노현아
	우등상	윤혁
고구려반	우등상	김유나
백제반	1년 개근	원수빈
	학기 개근	노현우, 윤하나
	우등상	윤하나
발해반	1년 개근	김민희, 서사무엘, 이수현
	학기 개근	원윤지
	우등상	김민하
고려반	학기 개근	원혁, 권하영
	우등상	원혁
	노력상	권하영



다솜한국학교
 Dasom Korean School
 1494 California Circle
 Milpitas, CA 95035
 Phone: 408-934-3600
 Fax: 408-934-1092
 info@dasomks.org



공지사항

2009년도 가을학기 등록 안내: 재학생의 등록 마감은 6월까지로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가을학기부터 금요일 오후에 수업합니다.

가을 학기 개강 일시: 2009년 9월 11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

제16회 한글 학생 백일장 대회 및 제9회 그림그리기대회 수상학생 명단 (2009년 5월 9일, Golden Gate Park, San Francisco, CA)

제16회 백일장 대회 중등부 수상자

- 입상: 이수정

제9회 그림그리기 대회 초등부 수상자

- 장려상: 노현아, 서사무엘, 노현우
- 입상: 이서영, 이수현, 장시은, 최유진